

종교교육학연구 제16권. pp.71~85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6

한국인의 정체성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高南植

(대진대학교)

《요약》

조선의 정체성이 천지공사(天地公事)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조선 관련 공사의 기저(基底)와 양상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대순사상이 출현하던 19세기 말은 열강들의 실리추구로 인한 국제 관계의 혼란과 조선 왕조 내부의 부패로 조선 민중의 정체성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일대 격동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체성의 혼돈은 조선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공통 사항이었다. 상제의 천지공사로 변화된 양상은 조선에 대해 대외 국제 관계와 조선인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조선은 후천 세계의 중심국이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대순사상이 출현하던 개화기와 미래 후천에서 조선의 위상을 재정립한 일이 된다. 천지공사는 신성 불 보살들이 세상 구원에 대한 한계 상황의 인식에서 청원에 의한 상제의 대순과 예지와 권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기존 선천의 혼란을 해결하는 종교적 행적으로 후천이라는 세계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일련의 작업이다. 천지공사의 기저가 되는 원리는 해원(解冤)과 조화(造化)인데 상제의 권능을 바탕으로 한 조화는 상생(相生)을 토대로 하였으며, 해원과 조화의 원리는 조선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도 역시 작용하였다. 조선의 정체성을 세우는 공사는 동학의 실패를 딛고 동학에 대한 민중의 소망을 이룬다는 참동학 사상으로 표출되어 조선 상등국, 조선 득천하, 남조선의 세계구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선 정체성 공사는 조선 내부의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도 전개되었다. 조선 정체성 공사에 담긴 의미는 삼계(三界) 통합적(統合的) 사유이다. 이것은 당대 문제의 극복에 대한 민중의 신앙적 열망, 외세의 침탈, 후천 개벽의 시운의 도래라는 복합적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핵심 주제어: 천지공사, 해원, 상생, 남조선의 세계 구원, 삼계 통합, 후천 개벽.

I. 서론

대순사상의 출현은 당대 인간 세상의 어지러움만이 아니라 삼계(三界)적 차원의 혼란과 관계된다. 삼계의 혼란에 대해 신성 불 보살들이 하소연을 해서 상제¹⁾가 강세하여 천지공사(天地公事, 11901-1909)를 수행했다는 것은 우주적 정체성을 정립한 행적이며, 상극(相克)으로 발생한 원한이 내재된 선천(先天)이라는 세계의 질서를 종교적 행적을 통해 새로이 조정해서 미래 이상세계인 후천(後天)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또한 상제의 천지공사에 의한 우주적 조정 작업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는 하나의 국가로서의 조선과 조선인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대순사상이 출현하던 19세기말은 열강들의 실리추구로 인한 국제 관계의 혼란과 조선 왕조 내부의 부패상이 교차하며 조선 민중들에게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던 일대 격동기였다. 조선에 밀려드는 서구 열강의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문화충격은 조선 내부의 문화 체계와의 충돌 속에 조선인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다주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세계 많은 나라들의 공통 사항이기도 하였다. 대순사상적으로 보아 특히 조선은 상제가 강세해서 천지공사를 행한 장소라는 면에서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조선이 후천 세계의 중심국이 된다는 면이다. 이는 상제의 천지공사에 따라 개화기 이후 조선의 위상을 재정립한 일이었다.

상제의 조선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한 현재까지 연구는 상제의 조선에 대한 천지공사가 상제가 조선에 탄강한 사실을 포함하여 민족주의적 성격으로 이루어졌다는 면²⁾과 조선이 미래 세계에서 세계의 중심국이 된다는 경향으로 이루어졌다.³⁾ 이에 이 논문은 두 가지 면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째로 기존 연구를 수용하여 상제의 조선에 대한 천지공사가 조선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종교적 행적이라는 관점에 기반하여 대외적 위치에서 조선의 변모와 조선 사회 내부의 변화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조선 관련 공사에 나타난 일련의 방법에 주목하여 대순사상의 특성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 조선 관련 공사와 관련된 사상적 기저(基底)와 양상 그리고 그 의미의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조선 후기에 이루어진 조선에 대한 예언적 내용을 살펴보고 천지공사가 조선 후기 대순사상의 태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미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면을 토대하여 현대 사회에서 대순사상이 추구하는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의 근간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1) 강증산(1871-1909)을 가리킴.

2) 홍범초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 홍범초, 《증산교 개설》, 서울: 창문각, 1982.

3) 김홍철, 《한국 신종교 사상의 연구》, 서울: 집문당, 1989.

II. 조선 정체성 공사의 기저(基底)

조선 정체성 공사의 기저를 살펴보기로 한다. 1925년 조정산⁴⁾(趙鼎山, 1895-1958)이 정한 대순사상의 종지(宗旨)는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經)으로 되어 있다. 음양합덕은 정음정양(正陰正陽)의 원리로 음양을 합하는 원리이고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기존 세계의 원한을 풀어 상생하는 세계를 만든다는 것이며 도통진경은 상생을 기저로 한 질서로 진경의 세계를 이룩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종지에서 음양합덕과 신인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으로 이러한 기반 위에서 세상의 질서가 상생이 되어야 하며 이룰 때 삼계에 도통진경이 열리게 된다.

따라서 종지는 해원과 상생의 원리가 기틀이 되는데 이것은 후천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상제의 천지공사에서도 나타난다. 공사사상을 구성하는 이상론, 현실론, 방법론, 결과론 등의 하위사상들에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원리가 해원(解冤)이다. 나아가 해원은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통합의 원리이므로 증산은 인류가 성장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쌓아 왔던 온갖 원한이 해소되는 이상사회를 이루어 인간과 삼계(三界)의 완성을 위해 공사를 집행했다고 믿어진다.⁵⁾

대순사상은 상제의 천지공사로 이루어지는 질서를 따라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천지공사에서 먼저 해원에 대해 보기로 한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道)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물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공사 1장 3절)

위 인용문에서 만고의 원한을 푸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원한으로 인해 재화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세상도 참혹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천이라는 이상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원이 필요하고 해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상생의 원리에

4) 대순사상에서 상제로부터 1917년에 계시(啓示)를 받아 종통을 계승한 인물

5) 김탁,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한국정신문화원 박사학위논문, 1995, 90쪽.

따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된다. 현세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간 인간의 신명들이 구원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혼이 되어 있는 피맺힌 원을 모두 풀어줄 때 거기에 비로소 평화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그의 사고는 단순한 예언 이라기보다 의인으로 표현된 정신세계요, 생명의 진리를 고차원적으로 표현한 상징철학인 것이다. 원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그의 해원상생 윤리는 세계평화를 건설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윤리를 제시한 것이며, 우리 인류의 마음 밑바닥에 깔아주지 않으면 안될 생명철학이기도 한 것이다.⁶⁾ 다음으로 천지공사에서 중심이 된 원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새 질서는 상제의 권능에 의한 조화(造化)로 이룩되는데 여기에는 개벽(開闢)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상제께서 이듬해 사월에 김 형렬의 집에서 삼계를 개벽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 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 쓰려면 쓸때 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엮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벽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고 분부하셨도다.(공사 1장 2절)

위에서 후천 개벽을 통해 새로운 이상세계를 만들겠다는 면이 나타난다. 상제에 의해 수행된 삼계 개벽공사는 인류의 존재 양상이 개벽이라는 명명하에 모순된 사회현실의 주체적 변혁을 통하여 신질서의 이상향인 후천의 선경을 지상에 구축하여 기층민을 광구하는 종교적 목적을 실현시키는 대역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증산은 상제의 자격으로 동토에 현신하신 것이고 천지인 삼계를 개벽하는 종교적 변혁을 감행한 것이다. 현실적 모순의 해결책은 인간의 삶의 터전인 세계의 개조(改造)에 있는 것이다.⁷⁾ 그리고 후천은 위 인용문의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엮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는 내용처럼 상제의 능력에 의해 새로이 창출

6) 柳炳德, 《韓國民衆宗教思想論》, 서울: 시인사, 1985, 54쪽.

7) 윤재근, 〈한국근대 사회변동과 대순사상〉, 제 5회 한일 종교연구자 심포지움 한국측 편, 《한일 양국의 사회변동과 종교》, 포천: 대진대, 1997, 36쪽.

되는 세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화에는 원시반본(原始返本)의 원리를 따라 선천 시대의 종교나 문화 등이 밀거름이 되는 토대 위에 상제의 주체적 창안이 가미되는 형식을 띄고 있다.

Ⅲ. 참동학과 조선 정체성 공사의 양상

1. 조선의 현실과 참동학 주창

조선 정체성 공사의 양상은 동학의 실패를 이루는 ‘참동학’으로 나타난다. 조선 후기는 내부적 부패와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가 좌초되어 가던 시대였다. 이러한 시기에 1860년 최제우의 동학 창건은 좌절된 민중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민중들은 동학이 제시했던 이상세계를 꿈꾸며 민중의 역동적 힘을 응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1864년 최제우의 참형과 함께 밀어닥친 탄압은 민중의 힘을 다시 수렁으로 몰아 넣고 말았다. 나아가 1895년 일제의 개입에 의한 동학 농민혁명의 실패는 민중의 열망을 뒤로 한 채 조선의 국권이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을 불러왔으며, 다른 한편으로 서세동점(西勢東漸)의 동서교류 하에 급변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는 조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닿는 대로 새 기쁨이 열리리라. 지나간 임진란을 최풍헌(崔風憲)이 말았으면 사흘에 불과하고, 진묵(震默)이 당하였으면 석달이 넘지 않고, 송구봉(宋龜峰)이 말았으면 여덟달에 평안하였으리라. 이것은 다만 선, 불, 유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되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 (《전경》, 예시 73절)

위의 인용문은 동서 교류로 세계가 한 집안이 되어 신도(神道)를 써야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 불 선의 법술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기존 선천 시대라면 이제는 동서양을 망라하는 차원에서 교류가 일어나 그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의 양상도 다양하고 다기해 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조류는 조선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켜 조선이 겪게 되는 시련과 고통은 극대화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의 법이 필요하게 되

었는데 그 법이 신도라는 것이다. 증산사상에서 과거의 풍류도(風流道)가 유불선(儒佛仙) 삼교(三敎)를 흡수하여 통일(統一)을 성취했던 것보다 더 확대하여 세계의 모든 특수한 생활경험에서 생기는 다양성에서부터 하나의 원본적(原本的) 상생(相生)문화의 진액(津液)을 창조하겠다는 구원의 비전을 읽는다.⁸⁾

이러한 상황 하에서 상제는 과거 동학의 실패를 딛고 진정한 동학을 다시 실현하는 참동학 사상을 주창하여 조선 민중들에게 희망과 활로를 열어 주고자 하였다. 참동학의 기치아래 상제는 조선의 정체성을 천지공사를 통해 정립시켜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조선이 후천의 주역이 되게 하였는데 이 일은 조선 민중의 정서에 잘 닿아 있던 동학을 부활시킨 참동학 사상으로 표출되었다. 참동학은 상제의 이상세계 건설의 이념이 응축된 용어로 동학에 호응했던 조선 민중의 정서에 맞아 새로운 조선사회 건설에 희망적 메시지를 주었다. 증산교의 의의는 여러 가지로 가려질 수 있을 것이나 한마디로 말한다면, 서세(西勢)에 대항하고 부패한 왕조(王朝)에 대항하던 동학의 저 대항의 원리와는 달리 보다 승화(昇華)된 종교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것이 민족 창조(創造)의 원리로 귀결되도록 한 데에 집약될 수 있다.⁹⁾ 상제의 종교적 이념이 참동학이라는 종교적 명칭으로 표출된 것은 특이한데 이는 상제의 의지가 동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홍철은 당시 증산사상에 나타난 민족주체의식을 첫째 증산이 상제의 권능과 힘으로 후천 선경을 꾸밀 기지로써 바로 우리 나라를 선택하고 이 민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둘째 강한 척외사상(斥外思想)을 갖고, 셋째 우리 나라를 장차 세계문화의 종주국으로 만들었으며, 넷째 조상 및 국조 숭배의 강조¹⁰⁾의 네 가지로 보았다. 천지공사에서 조선에 대한 공사는 대외적인 면, 대내적인 면에 대해 보기로 한다. 대외적인 면에서는 조선의 국체(國體)와 관련된 위상으로 조선 상등국, 조선 득천하, 남조선의 만국 구원이며 이것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조선에 대한 위상의 변화가 된다. 대내적인 면은 남조선의 만국 구원과 관련된 조선의 사회변동에 따른 것으로 신분 갈등의 해소와 평등성의 확보사 주를 이룬다.

2. 조선 상등국

상제가 조선을 상등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조선에 대한 해원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은 역사상 약소국으로서 외침 속에 열강들로부터 침략의 고통을 받아 왔으며

8) 金炯孝, 《東西哲學에 대한 主體的 記錄》, 서울: 高麗苑, 1985, 78쪽.

9) 裴容德, 《韓民族과 天地公事》, 서울: 甌山眞法會, 1976, 14쪽.

10) 김홍철, 《한국 신종교 사상의 연구》, 서울: 집문당, 1989, 301-305쪽.

로 국가적으로 원한이 있어 이를 풀기 위해 해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하에 약소국인 조선의 해원은 천지공사에 의해 향후 상등국이 되는 면으로 전개된다.

상제께서 매양 뱃소리를 내시기에 종도들이 그 연유를 여쭙니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를 상등국으로 만들기 위해 서양 신명을 불러와야 할지니 이제 배에 실어오는 화물표에 따라 넘어오게 됨으로 그러하노라.”고 하셨도다.
(예시 29절)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조선의 해원에 의한 상등국으로의 발전은 국가적 차원에서 상등만이 아니라 상제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후천이라는 이상세계의 건설을 위한 과정으로서 필요한 일이 된다. 상제는 1901년부터 9년간 조화정부를 열고 천지 운로를 뜯어 고쳐 물 샅 틈 없는 도수를 짜 놓았다고 하는데, 이를 천지공사를 했다고 한다. 이 천지공사 중의 하나가 세운공사(世運公事)이다. 세운공사란 우리 인류의 미래에 다가올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변천 과정과 발전 양상을 미리 설계하여 조선이 신세대운(新世大運)의 발상기점이 되도록 짜놓았다는 공사를 가리킨다.¹¹⁾ 조선이 상등국이 되는 것은 상제가 영적(靈的)인 상태의 대순에서 최종적으로 머문 곳이 조선의 금산사 미륵금불이고, 후에 상제가 인간으로 태어나 천지공사를 행해서 조선이 후천 법리의 중심 국가가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면은 조선의 득천하라는 내용에 나타난다.

상제께서 종도들을 데리고 계실 때 “현하 대세가 오선위기(五仙圍基)와 같으니 두 신선이 판을 대하고 있느니라. 두 신선은 각기 혼수하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라 어느 편을 혼수할 수 없어 수수 방관하고 다만 대접할 일만 맡았나니 연사에만 큰 흠이 없이 대접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로다.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돌은 주인에게 돌려지리니 옛날 한 고조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으되 우리나라는 좌상(座上)에서 득천하 하리라.”고 말씀 하셨도다.(예시 28절)

위의 인용문에서는 앞의 조선 상등국 공사를 이어 조선 득천하를 밝히고 있다. 당시 조선을 둘러싼 국제질서에서 조선이 바둑판으로 비유되고 열강들은 바둑을 두는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서 오선위기라는 지혈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조선 국운과 연관되고 조선의 국운은 오선과 바둑에 관계된다. 오선(五仙)

11) 김홍철, 앞의 책, 299쪽.

은 조선과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이다. 바둑판인 조선 땅을 차지하고자 열강들이 각축하는 경쟁이 바둑을 두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열강들이 각축하지만 결국 바둑의 종국(終局)은 주인인 조선이 국권을 갖게 되고 조선이 득천하를 하는데, 중국 한나라 고조(高祖)의 마상(馬上) 득천하 보다 훨씬 쉬운 좌상(座上) 득천하를 이룬다는 것이다.

3. 만국활계 남조선

조선이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국권을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득천하를 한다는 내용은 더욱 발전하여, 후천에서 남조선(南朝鮮)에서 만국(萬國)이 살아날 계책이 나온다는 주장으로 전개되어 조선에 대한 정체성 공사의 극치를 이루게 된다.

금산사에 상제를 따라갔을 때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天皇 地皇 人皇 후 天下 之大金山 母岳山下에 金佛이 能言하고 六丈金佛이 化爲全女라 萬國活計南朝鮮 淸風明月金山寺 文明開花三千國 道術運通九萬里¹²⁾란 구절을 외워 주셨도다.
(예시 14절)

위 인용문에서 남조선에서 모든 나라가 살아날 계책이 나온다는 것은 선천의 병겁 등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이라는 구원된 세계를 이루는데 조선의 역할이 크고 유일하다는 것이다. 증산의 민족주체사상은 결국 조선말 극도의 정체위기(正體危機)와 함께 손상되어지던 배달민족으로서의 자존과 자주성을 회복시키려 했던 그의 강열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민족의 자주성과 정통성을 회복시키려 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민족주체사상이 결코 타민족 타문화를 무조건 배제하는 국수주의적(國粹主義的)인 성격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종교이념의 목표를 전 세계인류의 구제라는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그러한 구제이념의 형성을 위해 외래문화의 수용과 민족문화간의 교류까지도 제창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문화의 보편성(普遍性)과 함께 한민족 문화의 특수성(特殊性)을 찾으려하는 보다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¹³⁾ 이것은 남조선 신앙의 일단으로 보여 지는데 남조선 신앙이

12) 천황 지황 인황 다음에 천하의 금산(금산사) 모악산 아래에 금불이 능히 말을 하고 육장금불이 강제로 화하여 된다. 모든 나라가 살 계책이 남조선에서 나오고 맑은 바람 맑은 달의 금산사라. 문명이 꽃 핀 삼천국이요 도술은 구만리에 통하네. (全女를 합성하면姜이 됨)

란 조선 중엽 이후부터 민간 사이에 크게 유행되고 있는 메시아 사상의 유형으로 근세에 이르러 연속되는 내우외환과 위정자의 무책무능(無策無能)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미래에 두는 이상사회를 구상화하는 것이다.¹⁴⁾ 이러한 세태 아래 상제가 주장한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¹⁵⁾’은 상제가 조선에 강세해서 천지공사로 후천의 도수를 만들어 놓은 일과 관계된 것이다.

조선이 만국을 살리게 된다는 것은 의통이나 도통 등의 신이(神異)한 작용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조선 사회의 내부적 갈등의 해소를 통해 정체성을 정립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후천의 조선의 위상을 사회 제도와 관련해서 보면 그것은 각종의 문제에서 평등(平等)의 원리를 이루는 일과 연관된다. 평등성의 확보는 천지공사의 근본 원리인 해원의 원리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억압과 모순에 의해 원한을 갖고 있는 계층에 대한 포용과 한풀이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분적 평등은 반상(班常)의 구별을 없애는 일이 해당되는데 상제는 스스로 상인(常人)들에게 존댓말을 썼으며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 전봉준이 죽어서 조선 명부수장(冥府首長)이 된 것은 천인(賤人)을 우대해서 잘 되게 해주려 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남녀의 평등을 이루는 것도 조선 사회의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를 위해 증산은 여성의 해원을 말하였고 조선사회에서 존양반으로서 스스로 노부(老婦)에게 길을 비켜 주는 행동도 보였다. 또 상제는 청춘 과부들이 순절하는 것을 비판하고 그들의 개가(改嫁)를 말하였으며 나아가 일부일처(一夫一妻) 제도의 필요성을 정음정양(正陰正陽)이라는 평등 원리 하에 주장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평등의 원리로 조선의 내부적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려한 것이 된다. 이는 상제는 평등의 토대 위에서 조선 사회의 과거 갈등과 대립을 해결한 위에 조선 사회의 정체성을 새로이 세워 나가려 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상제는 대 내외적인 면에서 조선 정체성의 새로운 정립을 통해 미래 조선의 위상을 바꾸고자하였다.

IV. 조선 정체성 공사에 담긴 의미

앞에서 조선의 정체성이 새로이 어떻게 정해졌는가를 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

13) 노길명, <증산의 민족주체사상>, 《증산사상연구》 제 6 집, 서울: 증산사상연구회, 1980, 57쪽.

14) 김홍철, 앞의 책, 65-66쪽.

15) 모든 나라가 살아날 계책이 남조선에서 나온다.

러한 조선 관련 공사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상제의 천지공사는 다음과 같은 선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상제께서 어느 날 김 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끝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겹박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母岳山) 금산사(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삼십년(三十年)을 지내다가 최제우에게 세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횡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교운 1장 9절)

위 인용문에서 세계의 문제점은 서양물질문명에 의한 삼계의 혼란으로 일어난 신도(神道)의 파괴이다. 즉 유기적이던 삼계 질서의 단절이 대순사상이 출현하게 된 이유이다. 한편 신성 불 보살이 하소연해서 구천(九天)의 상제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왔다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우주적 현실에 봉착해 신적 존재의 권능을 통해 문제를 극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은 정체성 정립에 신적 능력이 개입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면을 보여 준다.

이렇게 정체성에서 먼저 신적인 힘이 세상의 질서에 개입되어 인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인간의 주체적 노력에 의한 문제 해결이 조금은 뒤로 물러나 있는 일면을 준다. 그런데 이것은 신성 불 보살이라는 신적 존재가 인간 세상의 문제가 인간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한계상황 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권능이 있는 신적 존재에게 청원한데 기인한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인간과 신의 유기적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신계와 인계의 연계된 틀 안에서 정체성의 문제도 정해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시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은 인간중심적 세계관에서

탈(脫)인간중심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생태학적’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세계관으로의 전환은 이원론적인 형이상학과 인간중심적 가치관을 대표하는 서양의 세계관, 즉 우주에 대한 총체적 비전을 버리고 일원론적 우주관과 자연중심적 가치관에 뿌리를 둔 동양의 세계관, 즉 존재 일반에 대한 총괄적 비전과 만난다.¹⁶⁾

이에 따라 상제는 지기(地氣)가 통일되지 못하여 사상이 엇갈리고 인류가 반목쟁투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삼계 통합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조선의 미래상과 연관되는 도통군자에 대한 내용을 통해 인간과 땅의 유기적 관계를 보기로 한다.

상제께서 어느날 경석을 데리고 농암(籠岩)을 떠나 정읍으로 가는 도중에 원평 주막에 들러 지나가는 행인을 불러 술을 사서 권하고 “이 길이 남조선 뱃길이라. 집을 많이 실어야 떠나리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삼십리 되는 곳에 이르러 “대진(大陣)은 일행 삼십(三十)리라”하시고 고부 송월리(松月里) 최씨의 재실에 거주하는 박공우(朴公又)의 집에 유숙하셨도다. 공우와 경석에게 가라사대 “이제 만날사람 만났으니 통정신(通精神) 나오노라” 나의 일은 비록 부모형제 일지라도 모르는 일이니 또 “나는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의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하노라.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 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궁을가(弓乙歌)에 조선강산(朝鮮江山) 명산(名山)이라.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 동학 신자간에 대선생(大先生)이 갱생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대선생(代先生)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代先生)이로다”라고 말씀하셨도다. (권지 1장 11절)

위의 인용문에서 참화중인 무명의 약소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 주려 한다는 내용은 조선을 해원해 주기 위해 상제가 강세 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 인용문에서는 해원과 함께 조선이 명산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명산의 논리를 가져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풍수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풍수가 밀접히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는 땅과 인간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인데 이처럼 인간의 삶이 땅과 긴밀성을 갖는다는 것은 삼

16) 박이문,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서울: 당대, 1997, 80쪽.

계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함이다. 상제는 세상의 문제를 진단함에 서양의 과학 물질문명의 발달의 이면에 숨어 있는 폐단으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그러져 천지인 삼계가 혼란해진 사실을 밝혔다. 이를 회복하는 일은 삼계 질서가 회복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도통군자도 풍수가 좋은 명산의 나라 조선에서 출현됨을 말하였다.

조선의 풍수는 조선이 갖고 있는 천부적인 것이 되며 다른 나라들이 어찌 할 수 없는 것으로 힘의 논리에서 미약한 조선이 갱생할 수 있는 결정론적 사항이며 이를 통해 천지공사 후 조선의 정체성이 확연히 달라지는 개연성이 또한 내재되어 있다. 이는 인간과 땅의 결합논리를 축으로 조선 정체성 공사가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그것은 상제가 조선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자가 출현한다 하였는데 여기에서 도통군자는 상제의 사상을 널리 전하고 후일 후천이라는 이상세계의 주역이 되어 성사재인(成事在人)¹⁷⁾의 세계상을 만드는 대순사상적 완성된 인간상이다. 도통군자들은 조선의 금강산 일만 이천 봉과 관련되어 일만 이천 명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는 명산의 논리가 금강산 일만 이천 봉으로 귀결되어진 것이다. 특히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는 금강산의 내금강이 여성을 상징하여 내금강이 외금강 보다 많은 데 연유한 것으로 더욱 첨예하게 땅과 인간의 관계를 연계시키고 있다. 다른 예로 오선위기혈과 관련하여 인간사와 땅의 상관성을 보기로 한다.

상제께서 장근으로 하여금 식혜 한 동이를 빗게 하고 이날 밤 초경에 식혜를 큰 그릇에 담아서 인경 밑에 놓으신 후에 바둑의 시조 단주(丹朱)의 해원 도수를 회문산(回文山) 오선위기혈(五仙圍基穴)에 붙여 조선 국운을 돌리려 함이라. 다섯 신선 중 한 신선은 주인으로 수수방관할 뿐이오, 네 신선은 판을 놓고 서로 패를 지어 따먹으려 하므로(공사 2장 3절)

위의 인용문의 오선위기혈 이야기는 조선국운의 상승과 관련된 것인데 앞에서 살펴 본 남조선에서 만국이 살아날 계책이 나온다는 당시 국제 정세와 관련된 주장의 원천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 이는 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점이 인간적 차원의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논리를 말한 것이 된다. 한편 위의 인용문에서 조선의 국운과 단주의 해원이 연관성을 갖고 있음이 나타난다. 두 종류의 해원 내용이 오선위기혈이라는 지혈에 같은 맥락을 갖고 접근해 있다. 단주의 원한은 왕위를 계승받지 못한 것으로 단주수명(丹朱受命, 단주가 명을 받음)에 의해 단주의 해원

17) 일을 이루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

이 이루어진다. 단주가 명을 받는다는 것은 상제의 화천 후 상제로부터 명을 받아 계속적으로 후천을 이루는 종교적 행적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친인 요(堯)로부터 왕위를 계승받지 못한 단주의 해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조선의 해원에 해당되는 조선국운(朝鮮國運)을 돌리는 일과 연관되며 지혈을 중심으로 두 해원의 공통점이 맺어지고 있다는 것은 해원 논리의 실타래가 통합적 관점에서 풀려져야 뒀을 말해 준다.

그러면 조선의 해원은 단주의 해원과 무슨 상관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대순사상에서 살펴 본 조선의 새로운 정체성과 연관된다. 조선의 상등국화, 조선의 득천하, 남조선의 세계 구원, 도통군자의 출현 등의 일이 상제의 의지인 후천 이상세계 건설과 맞 물려있고 나아가 이는 단주가 명을 받아 이루어야될 목적과도 같은 카타고리를 맺고 있다. 이에 조선 해원과 단주 해원이 연결성을 갖는다. 즉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둔다는 오선위기는 조선의 대외 정체이며 이는 단주가 명을 받아 이루어야될 세상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두 해원이 지혈을 구심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사의 일이 땅과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구천에서 상제가 강세하여 삼계에 대한 천지공사를 행하였고, 도통군자가 도통신과 선령신, 단주해원이 단주 등의 천상 신적 존재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면에서 천계 지계 인계의 통합성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바로 잡혀지게 된다.

이상의 예들은 인간의 정체성에 있어 중요한 면이 땅의 논리와의 친화적 상관성이라는 것이며, 확장해서 보면 이는 자연 환경과의 친화성이고 나아가 천계 지계 인계로 세분되는 삼계라는 세계의 상관성과 그 통합적 사고의 틀 안에서 정체성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체성 성립에 있어 자연 환경과의 통합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인간 중심의 단선적 정체성이 일으킨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천지공사가 천지인 삼계의 유기적 관련성을 토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며, 삼계는 물론이고 조선이라는 지역적 정체성도 자연 환경과의 상생적 틀 위에서 상호 평등성 하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V. 결 론

천지공사는 신성 불 보살들이 세상 구원에 대한 한계 상황의 인식에서 청원에 의한 상제의 대순과 예지와 권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기존 선천의 혼란을 해결하는 종교적 행적으로 후천이라는 세계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일련의 작업이다. 천지공사의 기저가 되는 원리는 해원, 상생, 조화이며 이 원리는 조선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도 작용하였다.

조선의 정체성을 세우는 공사는 동학의 실패를 딛고 동학에 대한 민중의 소망을 이룬다는 참동학 사상으로 표출되어 조선 상등국, 조선 득천하, 남조선의 세계 구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선에 대한 일련의 정체성 공사는 상제의 천지공사가 이루어진 선택된 땅이라는 토대 위에 향후 조선의 대외적 위상의 변화를 내포하며 조선 내부의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조선 정체성 공사에 담긴 의미는 삼계 통합적 사유이다. 이러한 면은 첫째 조선에서 도통군자라는 대순사상적 완성된 존재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 조선의 풍수가 빼어나서 이며, 둘째 조선의 개화기 열강의 구도를 오선위기라는 지혈과 관련짓고 그 지혈의 뜻을 따라 조선의 국운과 단주의 해원이 상관된다고 한 내용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삼계 통합적 사유는 당대 문제의 극복에 대한 민중의 신앙적 열망, 외세의 침탈, 후천 개벽의 시운의 도래라는 복합적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탁,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한국정신문화원 박사학위논문, 1995.
 김형효, 《동서철학에 대한 주체적 기록》, 서울: 고려원, 1985.
 김홍철, 《한국 신흥종교 사상의 연구》, 서울: 집문당, 1989.
 노길명, 〈증산의 민족주체사상〉, 《증산사상연구》 제 6 집, 서울: 증산사상연구회, 1980.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저, 《전경》,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박이문,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서울: 당대, 1997.
 배용덕, 《한민족과 천지공사》, 서울: 증산진법회, 1976.
 유병덕, 《한국민중종교사상론》, 서울: 시인사, 1985.
 윤재근, 〈한국근대 사회변동과 대순사상〉, 제 5회 한일종교연구자 심포지움 한국측편, 《한일 양국의 사회변동과 종교》, 포천: 대진대, 1997.

원고접수: 5월 1일 1차심사: 5월 14일 게재승인일: 5월 30일

연구자 소개

- ① 전공: 고전문화 / 소속: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② 관심영역: 강증산 관련 경전의 변이 양상
 ③ 주요논저: 〈강증산 전승에 나타난 해원사상의 윤리적 특성〉, 《한국문화와 윤리의식》, 〈개화기 강증산 전승에 나타난 가족관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식〉
 ④ E-mail: nsko88@hanmail.net
-

Korean Identify and religious education of Daesoon-Thought

Ko, Nam-Sik

(Dae Jin University)

《Abstract》

The main point is that I am concerning about the identity of Chosun is how working in terms of CheonGii-Gongsa and look into the foundation, aspect and the meaning of the related Chosun-construction. The end of 19 century when Daesoon ideology represented is the time of violence giving the Chosun people's identity, which is due to the international relation of the powers' pursuit of profits and the corruption of Chosun dynasty, new changes. Under these situation the chaos of identity was common in both Chosun and the world. The changed aspect from Sangje's CheonGii-Gongsa made an effect on not only the Chosun's foreign international relation but also the Chosun people's identity. Especially Chosun's being a main nation of Hoochun is to rebuild the phase of Chosun in the age of civilization when Daesoon ideology represented and in coming Hoochun. CheonGii-Gongsa is formed of Daesoon's foresee and authority based on petition in recognition of the limited relief situation of Sinsung, Bul, Bosal and is the work that the religious achievement solving existing Suncheon's chaos rebuild the Hoochun's identity. The principle of CheonGii-Gongsa's foundation is Haewon, Sangsaeng, Chohoa and this principle worked in rebuilding of Chosun's identity. The construction of building Chosun's identity came out into the Cham-Donghag ideology which overcame the Donghag's failure and accomplished the people's desire in terms of Donghag and came into Chosun Sangdeugug, Chosun Deucheonha and south-Chosun's world rescue. This construction of Chosun identity also expand into the course of solving Chosun dynasty's disagreement and contradiction. The meaning of Chosun identity's construction is the Samgye unified reason. This speaks for mixed situation of coming propitiousness of the times of people's religious desire as for overcome of those days problem, a foreign country's invasion and the Hoochun-Gaebyug.

Key words: CheonGii-Gongsa, Haewon, Sangsaeng, south-Chosun's world rescue, Samgye unified reason, Hoochun-Gaebyug.